

衣裳 디자인의 줄무늬(Stripe Pattern) 研究

- 20世紀 以後 西洋 女性 패션을 中心으로 -

金主恩* · 曹圭和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碩士*,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教授

Study of Stripe Pattern Appeared in Apparel Design

- Focusing on Western Women's Fashion after 20th Centuries -

Kim, Ju-Eun* and Cho, Kyu-Hwa

MA.,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various types of stripes pattern and to review its' design expression by analysing stripe pattern and visual effect appeared in western women's fashion after 20th centuries.

As regards the visual effect of stripe pattern, on the basis of the stripe pattern's direction laid out, we made an investigation of it by classfying it into verticality, horizontality, slant line and mixture of them according to its' gap and thickness.

Here are the 4 features of the stripe pattern appeared in modern fashions. The first, graphic variation based on diverse variation and reconstruction and combination between other motives is being on the rise as a new expression. The second, colorful stripes of Missoni can be exanpled as the trend of diversification of color. The third, as regards the trend of mismatch in pattern, coordination through mismatch can produce experimental and post-modern image. The fourth, as for the expression of draping effect, we find that stripe pattern can maximaze visual effect through draping by inducing visual stimulus, as well as can express human body in a beautiful manner.

Key words: colorful(다채로운 색상), draping effect(드레이핑 효과), graphic variartion (그래픽적인 변형), mismatch(미스매치), visual effect(시각적 효과)

I.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또한 미의 기준도 종전과 달리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것이 아름다움으로 대두되고 있다. 스트라이프 패턴은 직물이 창시될 때부

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애용되어온 직물의 무늬로서 일상복에서 스포츠 웨어,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시대를 거쳐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하학 무늬로 시작했으나 점점 다양화되고, 또한 의복의 직물로 사용됨에 따라 그 의복 내에서 선의 다양한 효과를 냄으로써 뚜렷한 개성과 독창적인 의복

을 표현하는데 알맞은 무늬라 할 수 있다.

스트라이프 패턴은 문양의 일종으로 뚜렷하고 분명한 가장자리 선을 가짐으로써 시각적인 우선성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의복이라는 3차원적인 형태에 사용될 때 스트라이프의 특성은 형에 영향을 준다. 스트라이프 배치 방향과 굵기, 간격, 색채가 의복이라는 형을 통해 재해석됨으로써 눈의 지각을 수정하는 착시 효과를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문양의 성격이나 인상이 대상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현대 패션에서 스트라이프 패턴은 다양한 이미지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라이프 패턴에 관한 정의와 종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의상에 사용된 스트라이프 패턴의 시각적 효과인 착시효과를 위주로 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디자인을 사진 자료를 통해 연구하였다. 또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을 기하학적 양식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1920년대를 기점으로 196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그 커다란 흐름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창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21세기 개방사회에서 패션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은 디자인 분야 뿐 아니라 국가간의 경제와 문화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라이프 패턴의 정의를 직선이나 곡선을 평행하게 배치하게 배열하여 구성한 무늬를 그 범주에 전부 넣었다.

II. 스트라이프 패턴의 개념과 종류

1. 스트라이프 패턴의 개념

스트라이프 패턴(Stripe pattern)이란 줄무늬를 말하는 것으로 복식에 있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양이다. 스트라이프 문양은 복식사전에 의하면, '기하학적 문양의 대표적인 모티프이며, 직선을 평행으로 배열하여 구성한 것'¹⁾ 또는 '직물이나 편물의 표면에 가로 세로 사선방향으로 직선이나 곡선을

평행하게 나타낸 무늬'²⁾ 라고 되어 있다.

원래 장식문양은 표면에 더해지는 것이지만 대상(對象)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문양이 주는 성격의 인상은 그대로 대상의 성격에 나타난다. 스트라이프의 경우 가는 스트라이프가 바탕색과 강한 대조를 이루지 않을 경우는 스트라이프를 별로 인정하지 않게 되고 단색과 같이 취급되기도 하지만 강한 색채 대비로 굵은 스트라이프가 나타나 있을 때는 대상의 성격이 달라진다.³⁾

이와 같은 표현성을 가진 스트라이프는 직물이 창시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무늬로서 여러 민족에게 이용되는 대표적인 기하학적 무늬이다. 직물의 스트라이프는 자카드 무늬(Jacquard pattern)와 기계 날염의 최초 문양으로도 알려져 있다.⁴⁾ 이는 기하학적 양식의 두가지 학설⁵⁾ 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초기 인류가 직기를 이용하면서 기술적인 작업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터득한 기하학적인 무늬를 디자인 요소에 반영시킨 것이다. 자카드기를 이용하여 제작된 대표적인 예로 아메리칸 인디언 족인 나바호족의 스트라이프를 들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1900년경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기계미학의 기계주의 양식이 30년간 주도하면서 이 시기의 바우하우스 교육으로부터 직조의 공업 생산에 적합한 기능의 강조에 기인하여 기하학적인 구도를 가진 스트라이프 문양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스트라이프는 그 특성상 선의 방향과 굵기, 간격, 색채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진 직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스트라이프는 꾸준히 일반인들에게 기본적인 무늬로서 인식되고 있다.

2. 스트라이프의 기법의 종류

의복에 사용된 스트라이프를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면, 직조 과정 중과 직조 후에 나타나는 스트라이프로 분류되며, 직조 후에 나타나는 스트라이프는 염색에 의한 방법과 의복에 부가적으로 첨가된 장식선 등에 의해서 나타난다.

스트라이프의 종류를 봉제 기법상 크게 나누어 보면 직조, 편조, 염색과 자수, 그 외 의복에서 부가적

로 첨가된 장식선과 구성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조(織造)

직조란 직물을 구성하는 경사와 위사를 가지고 조직 방법에 따른 여러 가지 직물 표면의 형태와 질감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라이프는 사염(yarn dyeing)한 후 직조하는데, 경사에 두 가지 이상의 색실을 사용하고 위사를 단일색의 실로 제작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한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직조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경·위사의 재질을 바꾸기도 하고 실의 꼬임 방향을 바꾸어서 광택의 효과에 따라 시각적인 효과를 달리 한다. 예를 들면 도나카란(Dona Karan)의 원피스는 경사와 위사의 밀도를 달리한 직조법을 사용하여 독특한 질감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표현하였다.(그림 1)

2) 편조(Knit)

편조는 편물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한 가닥 또는 그 이상의 실로 계속 편환(loop)을 만들어 코와 코를

차례로 연결하여 천의 상태로 형성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편조는 편물의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상에 여러 가지의 무늬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3) 프린팅

날염을 말하는 것으로 직조가 끝난 직물 표면에 여러 가지 색상의 무늬를 염색하는 방법으로, 스크린 날염, 롤러 날염, 전사 날염 등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규칙적인 스트라이프의 표현 뿐 아니라 핸드 터치와 붓터치 등 불규칙적이고 수공예적인 스트라이프도 많이 나타난다. 또한 다채로운 색상의 스트라이프로 프린팅되어 재미를 더하는 작품도 볼 수 있다.(그림 3)

4) 봉제

스트라이프 기법에는 또한 봉제상 나타나는 스트라이프가 있다. 이것은 트리밍, 스티치와 같은 장식선과 턱, 플리츠 등의 구성선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완성된 무지로 된 의복에 리본을 일렬로 트리밍시켜 스트라이프의 효과를 내고 있다.(그림 4)



<그림 1> 직조에 의해 표현된 스트라이프(Dona Karan, '01 S/S) 「Collections」



<그림 2> 메리야스직의 스트라이프 (Missoni, '00) 「Collezi-oni」



<그림 3> 다양한 색상으로 프린팅 된 스트라이프(Jin Abe, '92) 「Fashi-on show」



<그림 4> 리본이 트리밍 된 스트라이프 (Prada, '01) 「Collections」



〈그림 5〉 화려한 비즈로 된 스트라이프 (Armani, '97) 「Collections」



〈그림 6〉 깃털로 표현된 스트라이프 (Gaultier, '00 S/S) 「Haute Couture」

5) 기타

직조나 편직, 프린팅, 봉제 등의 기법상 나타나는 스트라이프 이외에 장식을 부가시켜 나타낼 수 있는 스트라이프가 있다. 예를 들면 구슬, 깃털, 금속 등을 사용하여 스트라이프를 나타낸 경우이다. 이러한 기법은 무궁무진하며 직물이 아닌 것도 가능함으로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르마니(Armani)는 화려한 비딩 장식으로 스트라이프를 표현했다(그림 5).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는 원피스에 흑과 백의 깃털을 이용하여 스트라이프를 나타내었다.(그림 6)

III. 스트라이프 패턴의 시각적 효과

복식에서의 무늬는 복식의 형태를 갖도록 하는 필수적인 기본 요소는 아니지만 시각적 효과를 줌으로써 실제로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무늬는 착용자의 체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보는 사람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켜 착용자의 신체적 결함을 감추거나 매력적인 부분을 돋보이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평면적인 복식의 형태를 인체의 곡선과 더불어 입체적인 형태로 보이게 하는 데도 작용한다.⁶⁾ 스트라이프 패턴이 사용된 의복에서도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무늬가 주는 시각적 효과를 따르는데, 특히 스트라이프 패턴의 경우는 구성 성분인 선의 방향과 굵기, 간격, 색채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스트라이프 패턴의 방향을 중심으로 하여 각 방향 내에서의 굵기와 간격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각각 어떤 착시효과와 시각적 효과를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스트라이프 패턴은 문양의 일종으로서 뚜렷하고 분명한 선을 가짐으로써 대상의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⁷⁾ 이런 시각적 효과는 매우 커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인 요인에 모두 작용된다.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가로 스트라이프와 도시적인 이미지의 세로 스트라이프, 파격적인 다이내믹함의 사선 줄무늬 등 이러한 스트라이프의 다양한 방향은 의복에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그 굵기와 간격과 더불어 신체에 대한 지각의 틀을 수정하여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줄 수 있다.

인체는 3차원이고 의복을 통해 나타나는 스트라이프 패턴 역시 3차원으로 볼 수 있다. 3차원 내에서 스트라이프 패턴은 다양한 변형과 배치를 통해 시각적 착시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구성하고 있는 선의 방향과 굵기, 간격을 달리하여 다양한 효과를 내게 된다. 이러한 착시를 통해 신체적 결점을 감추거나 매력적인 부분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스트라이프 패턴이 배치된 방향을 중심으로 굵기와 간격을 달리하였을 때 그 착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실제로 현대 패션 속에서 스트라이프 패턴을 통해 보이는 다양한 시각적 효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직 배치

스트라이프 패턴의 수직적인 배치효과는 시선을 선의 방향으로 유도하여 길어 보이게 한다. 수직선이 굵어지면 선의 힘이 강해서 수직의 착시를, 선이 가늘어

지만 반복이 많고 선의 힘은 약해져서 수평의 착시를 만들어 낸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⁹⁾ 수직선이 일반 여성의 원피스의 전면에 5-6개 반복될 정도이면 가장 그 효과가 크고 8개가 반복될 때까지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그 이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눈을 수직으로 이동하는 힘을 잃고 수평으로 보게되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하였다.

〈그림 7〉에서 ㉔는 가장 굵은 선을 사용했는데 굵은 선을 사용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수직 배치는 확연하게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준다. 그리고 ㉕에서 ㉗로 갈수록 수직선의 효과는 상쇄되고, 수평선의 효과가 나타난다. 즉 눈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힘을 잃고 수평으로 보게 되어 ㉗의 경우는 오히려 뚱뚱해 보이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노랑과 검정의 강한 대비 효과의 아주 굵은 세로 스트라이프를 몸판 전면에서 사용한 〈그림 8〉는 시각적으로 길게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으나, 검정선의 배치를 양옆으로 같은 굵기로 배치한다면 더 날씬한 효과를 주리라 생각된다.

2 수평 배치

수평으로 배치된 스트라이프 패턴은 가로를 강조하여 뚱뚱하게 보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 원리이다. 그러나 몇 개의 간격

이 넓은 수평 스트라이프 패턴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이것은 인체가 세로로 서 있는 길이가 긴 직사각형이므로 수평의 효과를 낼만큼 가로가 충분히 넓지 않아 수직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짧은 상의에만 수평 방향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사용한다면 수평의 효과가 있겠지만, 전신에 걸쳐 사용되는 스트라이프 패턴의 경우에는 눈을 수평으로 끌 공간은 너무 짧고 수직으로 유도할 길이가 충분하므로 수직선의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스트라이프가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불규칙적으로 반복된 스트라이프 패턴의 경우는 오히려 수직효과가 없어지고 수평효과를 더욱 강조하게 된다.¹⁰⁾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규칙적인 간격을 가진 스트라이프의 경우 위안감과 안락감을 주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규칙적으로 반복하게 될 경우 지루함을 줄 수 있다.

〈그림 9〉에서 ㉘보다 ㉙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데, 같은 굵기의 경우에는 그 간격이 좁을수록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색상의 대비가 적을 경우 그 굵기나 간격이 너무 가늘거나 좁을 경우는 무지의 효과를 내게 됨으로 그 착시효과는 줄어든다 할 수 있다. 또한 스트라이프의 굵기가 다를 경우를 보면, 굵은 스트라이프보다 가는 스트라이프가 수평방향으로의 착시효과는 크게 나타남을 ㉚



㉔ ㉕ ㉗

〈그림 7〉 수직 스트라이프



〈그림 8〉 세로 스트라이프(Xuly Bet, '96) 「Collections」

와 ㉔를 통해 알 수 있다.

현대 여성의 바렘인 키가 좀더 커 보이기 위해서는 가로로 된 스트라이프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는데 특히 ㉔에서처럼 아래로 갈수록 간격이 넓어지는 수평으로 된 스트라이프를 사용했을 경우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는 점진적인 효과로서 수평으로 배치된 스트라이프 패턴의 경우 이런 점진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점진은 일관성 있는 진행과정으로 연속되며 이러한 진행방향은 어떠한 절정방향을 향해 형성될 수도 있고, 그 절정 부분에서 진행이 정지될 수도 있다. 또한 그 절정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거나 반전될 수도 있으며, 원래의 단계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점진화된 연속이 길면 길수록 절정의 정도는 더욱 크게 형성된다.¹¹⁾ 점진이 사용된 인체 부위에 시선을 끌게 하는 강력한 입체적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켜 크기의 점진에서 다소 큰형들은 확대효과를 가지며, 끝 부분에 사용된 좀더 작은형들은 축소효과를 가진다. 끝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스트라이프를 사용할 경우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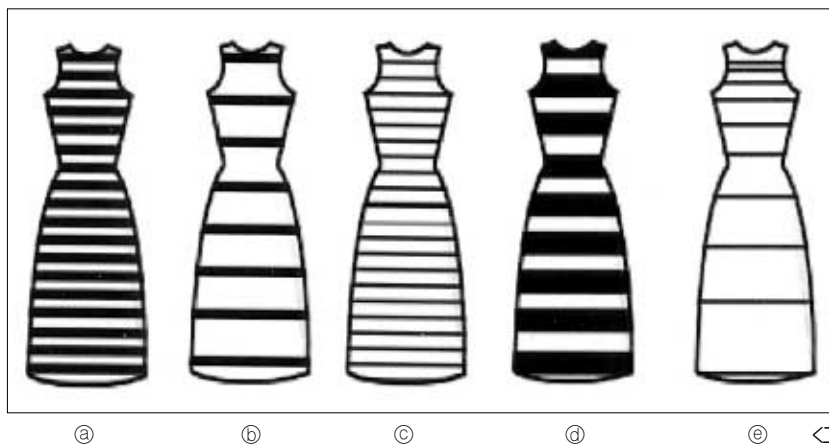
굵기와 간격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배치하여 착시효과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일종의 비례를 달리 한 것인데, 허리가 긴 여성의 경우 허리에 좁은 간격의 스트라이프를 배치하여 잘록한 느낌을 듣게 디자인하거나, 수

평 배치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착시효과 뿐 아니라 아주 무난한 배치로 많이 사용된다. 안정적인면서 경쾌하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줌으로서 캐주얼웨어에서 스포츠 웨어에 이르기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치이다.

3. 사선 배치

일반적으로 사선 방향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사용할 경우 사선이 주는 느낌을 따라게 되는데, 불안정하고, 바쁘며, 활동적, 역동적이고, 침착하지 못하고, 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또한 의복 디자인에 있어서 수직 수평선에 비해 가볍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경쾌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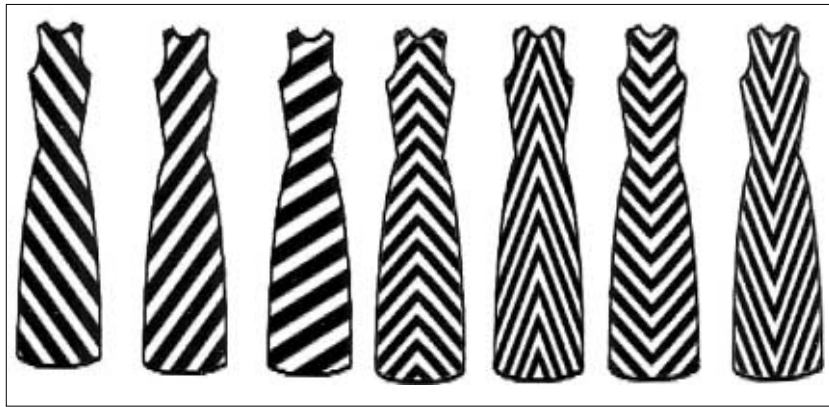
이런 스트라이프의 사선 배치는 그 각도와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각적 착시효과를 가져온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를 향한 사선을 볼 때 밑에서 상승하는 코스를 따라 본다는 의미가 된다.¹²⁾ 그러므로 이 사선의 느낌은 가볍다. 반대의 경우는 하향하는 느낌을 주게 되고 무거운 인상을 주게된다. 방향이 반대인 두 사선이 만날 경우에는 사선의 형태는 중심에서 좌우가 상향으로 배열된(위쪽으로 뾰족한) 경우는 경쾌하고 밝은 느낌을 주고, 반대로 좌우가 아래로 배열된(아래쪽으로 뾰족한) 경우는 아래로 처진 느낌에 따라 어둡고 정적인 느낌을 준다¹³⁾.



<그림 9> 다양한 수평 스트라이프



<그림 10> 점진적인 가로 스트라이프 (Valentino, '01) 「Collection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그림 11〉 다양한 사선 스트라이프



〈그림 12〉 대칭구도의 사선 스트라이프 (Boss, '01) 「Collections」

위와 같이 사선의 방향이 의복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더하여 사선의 각도 또한 방향의 효과를 강조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즉 수평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림 11-⑥〉처럼 사선의 경사 각도가 커서 세로선에 가까운 것은 세로 효과를 나타내어 길이 방향으로 강조되고, 〈그림 11-⑤〉처럼 경사 각도가 작아 가로선에 가까운 것은 가로 효과를 보다 강하게 나타낸다. 또한 〈그림 11-④〉처럼 두 사선이 만나 각도를 이룰 때도 수평선을 기준으로 각도가 클 경우는 그 방향으로의 효과가 약화되어 수평적인 느낌이 들고, 각도가 작을 경우는 〈그림 11-⑥〉처럼 방향이 주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1-⑧, ⑨〉가 〈그림 11-⑥, ①〉보다 더 수직적 느낌을 강조하게 되어 날씬한 효과를 줄 수 있게 된다.

사선 배치도 수직, 수평 배치와 같이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하면 그 효과가 강하지 못하고, 굵기나 간격이 가늘고 좁을 경우도 사선이 주는 역동감은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부분적으로 굵고 넓게 사용하였을 경우 그 효과는 아주 강하게 되어 스피드하고 역동적인 인상을 강하게 주게 된다. 또한 이런 사선의 역동적이고 불안정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칭구도를 통해 안정성을 찾기도 한다. 〈그림 12〉 흔히 볼 수 있는 테일러드 재킷의 라펠 부분도 이에 속하는 원리라 볼 수 있다. 허리 부분에 커팅을 넣어 색상이 다른 스트라이프 패턴을 사선으로 배치하여 허리를 날씬하게 보이

게 유도하고 있다. 또한 사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시선을 끌리게 하는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 〈그림 13〉에서는 의상 전체에서 오른쪽 위를 향하게 사선을 집중시켜 시각적 이끌림을 유도하고 있다.

4. 혼합 배치

스트라이프 패턴은 배치 구조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인체를 좀더 아름답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의복에서 커팅선을 다양하게 디자인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핸드 터치로 프린트된 스트라이프 패턴을 이용한 〈그림 14〉는 스트라이프의 방향을 프린세스 라인을 기준으로 다르게 배치하여 허리를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시각적 착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방향이 다른 스트라이프 패턴들을 십자형으로 조합하여 집중의 효과를 나타낸 디자인도 있는데, 이런 집중의 효과는 중심점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사용된 신체의 일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끌게 할 수 있다.

IV. 현대 패션과 스트라이프 패턴

현대 패션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대적인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던 디자인 시대가 등장한 제 1차 세

계대전을 전후해서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모더니즘의 심플리시티가 초점이 되는 아르데코의 기하학적 양식이 대두되기 시작한 1920년대와 혁명적인 모더니즘이 극치에 달했던 1960년대를 기점으로 그 전후로 나누어 스트라이프 패턴이 복식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의 변천

1) 20세기 전반기

현대의 중심 사상인 기능주의가 대두된 1920년대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스포츠의 보급으로 사치 노출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스포츠하기에 편한 간편하고 기능적이며 실용적인 의상들이 등장했다. 이때에 샤넬과 같은 기능주의 디자이너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샤넬의 디자인에 있어서 스트라이프는 모던 스포티의 이미지를 갖게 해 주었다. 세일러 룩을 매우 시크한 것으로 변화시킨 스트라이프 패턴은 샤넬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모티프였다(그림 15).

20, 30년대를 지배한 아르데코의 특성은 형태와 색

채에서 나타났다. 심플리티(simplicity)가 형태적인 특징으로 부각되던 아르데코의 정신에 스트라이프 패턴이야말로 가장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서 색채를 강조하기에 알맞은 패턴이었다(그림 16). 당시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소니아 드로네(Sonia Delaunay)¹⁴⁾는 심플하고 분명한 모티프, 그것이 신체에 어울리는 점, 가끔 선명하되 조화가 잘되는 점을 중시했다.¹⁵⁾ 명쾌한 색조와 단순한 스트라이프 패턴은 아름다움과 모던함을 주어 아르데코 양식의 전형을 이루었다.

1930년대 들어서 패션은 전시대 직선적인 실루엣에 대한 반작용으로 넓은 어깨와 상대적으로 가늘어 보이는 허리가 성숙한 여성미를 표현하였다. 스트라이프 패턴을 이용해 허리를 강조하는 여성스런 실루엣을 나타내었고, 스트라이프 패턴의 우아한 드레이핑을 통해 깊이 파여 가슴을 강조한 네크라인을 표현한 디자인도 많이 나타났다(그림 17)

1940년대 의복에는 전쟁중으로 밀리터리 패션인 어깨가 사각으로 강조되는 남성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의 테일러드 슈트를 착용했다. 직물 또한 매니시한 느낌의 것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색상 또한 어두운 색인 검정, 회색, 갈색조가 주류를 이루면서 핀 스트라이프나 초크 스트라이프의 사용이 많았다. 커팅 선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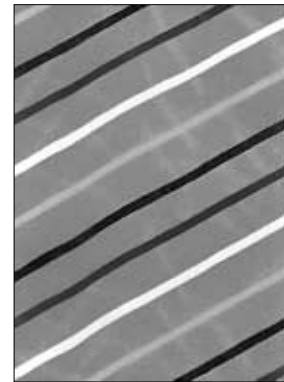
<그림 13> 허리에 들어간 사선 스트라이프 (Genny, 91-92) 『Collezioni Bis』



<그림 14> 허리가 날씬해 보이는 스트라이프 조합 (Vivienne West wood, '96) 『Collections』



<그림 15> 샤넬의 저지 블라우스 (1935) 『Cubism and Fashion』



<그림 16> 소니아 드로네의 스트라이프 직물 디자인 『L'art abstrait』

서 각진 어깨와 가는 허리를 강조한 딱딱한 느낌의 수트로 밀리터리 룩을 표현했다.(그림 18)

1947년 디올의 뉴 룩 이후 1950년대부터는 엘레강스하고 여성스러운 패션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이시기에 로큰롤 룩이 유행하여 가는 스트라이프의 로큰롤 팬츠를 입은 발랄한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19) 오드리 헵번이 사브리나 팬츠와 함께 입은 보더티셔츠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활동적이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스트라이프 셔츠도 유행하였다.

2) 20세기 후반기

1960년대 복식의 경향은 하이테크와 우주 과학 등의 발전으로 기술 과학에 관한 낙관주의로 극소화된 기하학적이고 구축적 형태를 이용한 미니가 대유행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¹⁶⁾는 소형화의 붐을 일으켰다. 또한 종래의 “과도한 표현만이 곧 예술이다”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순수한 추상의지로 대상을 색, 선, 면만으로 환원하여 표현하는 예술사조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예술의 일환으로 옴아트¹⁷⁾가 나타난다. 스트라이프 문양은 가장 단순하고 기하학적 문양의 하나로서 좋은 매개체가 되었다. 앙드레 쿠레주(André Courrèges)와 피에르 카르댕(Pierre Cardin)은 우주시대와 기하학적 옴아트에 대한 열정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특히 앙드레 쿠레주는 수직적인 흑색의 굵은 스트라이프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능숙하게 사용하여 단순 명쾌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그림 20) 그는 옴아트를 처음으로 의상에 도입한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서, 그의 기하학적인 디자인은 스트라이프가 주는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졌다. 「Vogue」지는 그의 작품에 대해 “그의 테일러링은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다.”¹⁸⁾라고 그의 기하학적 라인에 대해 평했다. 또한 피에르 카르댕은 1967년 줄무늬 망토 시리즈에 이어 1970년 스트라이프 보디 타이츠 시리즈를 내놓았다(그림 21). 이렇듯 기하학적인 요소가 복식소재의 무늬로 채택되었고, 이런 기하학적 무늬를 넣은 기하학적 형태의 스타일을 통해 모더니즘을 극단적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이런 기하학적 형태와 무늬는 기성복 시장이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복사하기에 가장 쉬운 제품들이었다.¹⁹⁾

대량생산과 소비문화의 특징을 반영하는 예술로서 팝 아트²⁰⁾가 등장하게 되었다. 팝 아트에서는 스트라이프는 별, 하트 무늬와 함께 주로 사용되었다. 한편 빨강과 흰색의 스트라이프는 미국의 성조기를 상징하며 현대패션에서 꾸준히 사용되는 아이템이다. 또한 60년대의 특징적인 사건 중 하나는 팬티 스타킹의 등장이었는데, 미국의 전위적 디자이너 루디 건릭은 <그림 22>에서 슈트와 스타킹을 스트라이프 패턴을 통해



<그림 17> 엘레강스한 드레스 (1939) 「American Fashion」



<그림 18> 각진 어깨의 슈트 「American Fashion」



<그림 19> 로큰롤 팬츠 (1957) 「Keystone Press Agency」



<그림 20> 앙드레 쿠레주의 우주룩 「This Fabulous Century」

일치시키는 작품을 제시하여 최초의 '토탈 룩(total look)'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60년대는 활기차고 스포티한 젊은이들의 시대인 만큼 대비색의 스트라이프의 사용은 이전보다 특징적이고 다양화되었다.

경제적 불황과 테러 등으로 얼룩진 '냉소적인 70년대(Cynical Seventies)'²¹⁾의 이상적인 여성상은 자아 주체성이 확실하고 능력있는 여성이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실용적인 스타일을 선호하게 되었고, 남성적인 테일러링이 특징적인 팬츠 슈트가 크게 유행하였다.(그림 23) 이때 남성복 소재인 회색 플란넬과 스트라이프 패턴이 애용되었다. 특히 1978년 「Time」지에 입생로랑(Y. S. Laurent)의 핀 스트라이프 팬츠와 베스트, 모자에 남성정장의 테일러룩을 소개함으로써 여성복의 매니시 모드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나타난 운동에 관한 관심이 아주 커지기 시작하여 조깅과 에어로빅과 같은 운동 붐이 일어나 패션에 있어서도 다양한 운동복과 편안한 캐주얼 스타일이 선호되었고, 경쾌하고 스피드한 인상을 주는 스트라이프는 이런 흐름과 같이 더욱 인기를 끌고, 건강한 매력을 돋보이게 해주었다.

1990년대 들어서 복고풍의 유행으로 모더니즘의 형식적이고 극단적인 합리주의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수많은 가능성이 공존하는 다원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 디자인의 발상을 얻었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다양한 스타일이 끊임 없이 반복, 변형되어 유행하였다.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의 특징

1) 다양한 변형의 재구성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 스트라이프를 구성하고 있는 선의 변화가 다양해졌다. 1960년대 유행한 그래픽 룩을 시작으로 그 대표적인 읍·아트가 나타나면서 스트라이프는 다양한 변형이 시작되었다. 단순하게 선 자체의 굵기나 간격을 일정하게 변화시킨 것과 더불어 핸드터치 적인 감각을 부여한 것도 나타나고 불규칙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스트라이프들이 나타났다. 또한 스트라이프 선을 수정하여 재배치한 것과 여러 선들이 겹쳐지게 나타나는 스트라이프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스트라이프에 나타나는 그래피즘적인 표현은 컴퓨터 그래픽의 영향으로 추상기하학의 형을 이루며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다.²²⁾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스트라이프와 다른 모티프와의 결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트라이프 본래의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선들을 재구성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대개 그래픽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스트라이프의 굵기



<그림 21> 스트라이프 보디타이즈 (Pierre Cardin, 1970)



<그림 22> 루디 건릭의 토탈 룩 「Rudi Gemreich」



<그림 23> 남성복풍의 팬츠 슈트(1971) 「New York Fashion」

와 간격, 방향을 직선적인 틀 안에서 자유로이 배치하고 현대적 감각의 그래픽 패턴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24)

스트라이프의 선 자체의 변화와 다양한 재구성 효과와 더불어 스트라이프 패턴에 다른 패턴을 결합하여 새로운 패턴을 창조한 경우도 있다. 보통 이 경우는 기하학적인 선과 도형을 결합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복잡한 지오메트릭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스트라이프와 사각형, 원 등의 지오메트릭한 무늬를 결합시킨 <그림 25>에서는 새롭고 재미있는 이미지가 나타난다.

2) 다채로운 색상

1960년대 팝아트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잘 사용되지 않았던 컨트라스트가 강한 배색이 나오기 시작했다. 팝아트에서는 줄무늬의 사용이 많았는데 스트라이프를 통해 강한 색채대비로 저속하기까지 한 색상들이 등장했다. 자극적인 원색의 의상을 타운웨어화한 베네통의 출현도 팝 룩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말 사이키델릭 아트가 나오면서 색채는

더 강렬해졌다. 형광색이 섞인 자극적인 색의 사용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는 사이키델릭 패션이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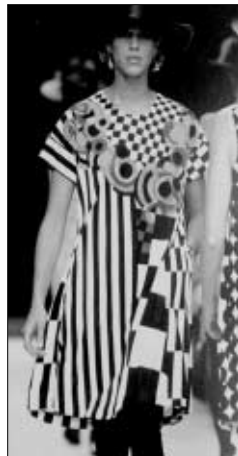
1968년 미국에서는 화려한 색상의 아프리카 풍이 나타난 이후 아프리카 풍이 에스닉에서 자리 잡으면서 스트라이프 문양에서도 다채롭고 화려한 컬러가 등장했다. 미소니(Missoni)는 다양한 색상의 지그재그 스트라이프 패턴을 이용하여 비치 웨어를 디자인했다.(그림 27) 또한 그는 이미 '89년 춘하 컬렉션에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그의 대표작이 된 무지개빛의 흐릿하고 영롱한 스트라이프(iridescent stripe)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그에 의해 선보인 다양한 멀티 컬러의 배색은 1990년대 여러 디자이너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미소니와 더불어 다채로운 색상의 스트라이프를 선보인 디자이너로 소니아 리켈(Sonia Rykiel)을 들 수 있는데, 그녀는 '01 춘하 컬렉션에서 화려한 멀티 컬러 스트라이프를 선보여 트렌드를 이끌어 나갔다(그림 28).

3) 패턴의 미스매치

1960년대 이후가 되면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 따



<그림 24> 그래픽컬한 스트라이프 (BCBG, '01 S/S) 「Collections」



<그림 25> 스트라이프와 기하학적 패턴의 믹스('92 S/S) 「Collections」



<그림 26> 사이키델릭한 색상의 스트라이프 「20th Century」



<그림 27> 미소니의 다양한 색상의 지그재그 스트라이프 (1968) 「Missonologia」

른 실험주의적이고 해체적인 양상이 팝아트, 옵아트 등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1980년대는 이러한 기존의 복식개념을 파괴하는 안티 패션이 대중화되어 하이패션에까지 나타났다. 포스트 모던이란 과거를 회고하고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현대에 가져오는 동시에 과학기술의 지배를 받는 가능성을 초월하여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고, 결국 이것은 합리주의와 기능주의가 막다른 단계에 도달한 근대화된 모든 것에 요구되는 시대의 전환을 의미했다.²⁹⁾ 이런 시대 흐름과 더불어 스트라이프를 사용한 의상에서도 다양한 코디네이션이 나타났다.

다른 무늬의 패턴을 매치시켜 의외성을 가진 코디네이션을 창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흔히 '패턴 미스매치'라 불린다. 스트라이프 패턴과 꽃무늬는 아주 흔한 무늬이지만 이 두 개의 무늬를 코디네이션시키거나 굵기가 다른 스트라이프 패턴의 매치나 스트라이프 패턴과 도트 패턴의 매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굵기가 다른 세 종류의 스트라이프와 어깨에 걸친 도트 문양의 매치로 다양한 코디네이션을 창조하였다.(그림 29) 스트라이프와 함께 다른 소재나 형태의

것을 코디네이션하는 경우도 있다. 적백의 스트라이프 위에 플라스틱 디스켓을 코디네이션시키고 있다.(그림 30) 이러한 경우와 함께 여러 색의 스트라이프로 된 스타킹이나 스트라이프를 이용한 소품들을 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모두 팝적인 이미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 드레이핑 효과

스트라이프 패턴은 단순한 기하학적 문양이지만 명확한 선으로 인하여 이것이 인체에서 의복으로 나타날 때는 그 선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까다로운 문양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훌륭한 디자인의 경우 오히려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하여 다양한 드레이핑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오프 쿠튀르의 경우는 다양한 드레이핑 기술과 감각적 디자인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창출해 내는데 있어 스트라이프는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1948년 크리스티앙 디올(Christian Dior)에 의해 디자인 된 굵은 스트라이프 패턴의 오간디로 만든 드레스는 드레이핑으로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31) 그 외에도 스트라이프가 주는 시각적 이끌림에 착안하여 다양한 드레이핑을 선보인 디자인이 많이



〈그림 28〉 멀티 컬러 스트라이프(Sonia Rykiel, '01 S/S) 「Fashion show」



〈그림 29〉 여러가지 패턴이 믹스된 디자인 (Akiko isomura, '89 S/S) 「Collections」



〈그림 30〉 플라스틱 디스켓이 달린 원피스 (Comme des Car ons, '01 S/S)「Collections」



〈그림 31〉 오간디로 만든 드레스(1948)「Christian Dior」



〈그림 32〉 스트라이프의 드레이핑 효과 (Atelier Versace, '01 S/S)「Haute couture」

나타나는데, 흑백의 스트라이프 패턴의 드레이핑으로 집중 효과를 읊아트와 같은 착시가 나타난다. 스트라이프 패턴을 원피스 아랫부분에서 굴곡지게 드레이핑한 유동적인 선의 움직임은 통하여 시각적 이끌림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베르사체(Versace)는 '01년 춘하 시즌 글래머러스하고 섹시한 스타일의 드레스를 선보였는데, 몸에 붙는 실루엣의 드레스에 스트라이프 패턴을 다양한 방향으로 인체의 굴곡에 따라 드레이핑하였다.(그림 32) 이는 인체의 곡선미를 강조하는 실루엣으로 의복내에서 꿈틀거리는 시각적 이끌림을 주고 있다.

V. 결론

이상에서와 같이 의상 디자인을 위한 스트라이프 패턴에 관한 연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스트라이프 패턴은 줄무늬인 복식에 있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양이다. 이것은 직조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무늬로서 가장 단순한 형태를 띄고 있고 있는 문양으로 직조, 편조, 프린팅을 통해 나타나지만, 그 외 자수나 트리밍 등을 통해서도 스트라이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트라이프의 종류를 기법상의 분류에 따라 직조, 편조, 프린팅, 장식선과 구성선의 봉제, 그리고 기타 장식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스트라이프 패턴의 시각적 효과에 관해서는 착시효과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착시효과는 스트라이프 패턴이 그 배치 방향과 굵기, 간격이 의복이라는 형을 통해 재해석됨으로서 눈의 지각을 수정하는 착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스트라이프 패턴의 배치된 방향을 가로, 세로, 사선, 혼합을 기준으로 간격과 굵기를 달리 하였을 때의 각기 다른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먼저 수직 배치된 스트라이프 패턴에서는 선의 수가 많아지면 시선이 수평으로 이동하여 수평의 착시를 만들어 역효과를 주게 되었다. 수평 배치의 스트라이프 패턴 경우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착시효과를 보이는데 이는 선의 반복에 따

라 시선이 수직으로 움직여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선의 경우는 기울기가 시각적 효과에 작용하게 되는데, 기울기가 큰 경우는 수직의 효과를 적은 경우는 수평의 효과를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혼합의 경우는 잘 이용할 경우는 시각적 착시의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많은 사용은 시각적 분산을 일으켰다.

현대 패션과 스트라이프 패턴에서는 먼저 스트라이프 패턴의 유행을 알아보았는데, 이는 기하학적 양식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20년대를 시작으로 해서 196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스트라이프 패턴을 현대 패션과 더불어 살펴본 결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트라이프 패턴의 특징들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다. 첫째 다양한 변형과 재구성으로 그래픽적인 변형이나 다른 모티프와의 결합, 새로운 표현 방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색상의 다채화 경향으로 대표적으로 미소니(Missoni)의 영롱한 빛깔의 스트라이프를 들 수 있다. 셋째 패턴의 미스매치 경향을 들 수 있는데, 패턴 미스매치를 통한 코디네이션으로 실험적이고 포스트 모던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넷째 드레이핑 효과의 표현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은 그 특성상 드레이핑 효과를 통해 시각적 이끌림을 유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체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1) 조규화(편) (1995), 스트라이프 패턴, 『복식사전』, (서울: 경춘사), p. 305
- 2)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3) 조규화(Idfj)
- 4) 이순구(1989), “날염과 자카드의 복합 문양에 관한 연구” 효성 여대 석사 학위 논문, p. 36.
- 5) 1학설: 기하학적 양식은 지구상 모든 것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했다.
2학설: 이 양식의 가장 단순하고 가장 중요한

- 미술적 문양은 그 맨 처음형을 편물과 직물의 기술에서 얻었다.
- 6) Helen L. Brockman(1965), 「The Theory of Fashion Design」, New York: John Wiley & Sons. p. 304.
- 7) Marilyn Revell DeLong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 8) Marian L. Davis(1980). Visual design in dress, (New York: Prentice-Hall), p. 69.
- 9) 류정아, 임원자(1993). 의복디자인의 선이 체형에 미치는 착시효과. 『한국의류학회지』, Vol. 17, p. 475-490
- 10) 복식의 시각 디자인 p.262.
- 11) 채금석(1994), 『패션 디자인 실무』 (서울 :교문사), p. 131.
- 12) 가재창(1993) 『패션 디자인 2 발상 트레이닝』, 정은출판사, p. 35
- 13) Marian L. Davis(1980). Visual Design in Dress, (New York: Prentice-Hall), p. 69.
- 14) 소니아 드로네(Sonia Delaunay: 1885-1979)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여류화가로 1910년 로베르 드로네와 결혼하여 함께 색채에 의한 리드미컬한 추상을 추구하였다. 특히 직물·복식 디자인 등 장식미술에 뛰어났으며, 대표작으로는 오르피즘적인 「동시대주의 색채」를 들 수 있다.(이재운(1989), 『미술사전 III 인명편』, 서울: 한국미술연감사, p. 76)
- 15) A. Cohen(1975). Sonia Delaunay(New York : Harry n Abrams), p. 61.
- 16) '최소 예술', '환원 예술', '후기 기하학적 구조', 'ABC Art' 등 다양한 별칭으로도 유명한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후반에 나타난 본질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며, 엄격하고 비개성적이며 극단적인 간결성과 기계적인 엄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하학적인 예술형태를 의미한다.(베이커, K(1993). 『미니멀리즘』, 김수기(역). 서울: 열화당)
- 17) 옵·아트(Op·Art)는 옵티컬 아트(Optical Art)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옵티컬(Optical)이란 비주얼(visual)의 전 단계로서 지각의 원인 또는 재료가 되는 표상을 말하며 보기 위하여 보는, 즉 단순한 망막자극을 통한 객관적인 지각반응의 단계이다. 따라서 옵아트는 순수하게 보는 것으로서의 미술, 즉 순수정신의 미술로서 단지 지각의 원소만을 제공함으로써 만족하려는 미술표현의 한 기법이며 패턴이나 반복의 효과를 통하여 관객에게 심리적인 반응을 유도시키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Cyril Barrett(1987). 『옵아트』, 정미희(역). 서울: 미진사)
- 18) 『Vogue』 September, 1963. p. 172
- 19) Georgina Howell(1979). In Vogue(London: Allen Lane Penguin Books Ltd), p. 284.
- 20) 팝아트(Pop Art)는 Popular Art(대중미술)의 준말로 1960년대 미국에서 생긴 운동으로 본래 미술 모티프의 대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일상적, 통속적인 것을 도입하여 예술적 통념에 구애받지 않는 미국적이고 전위적인 것을 말한다.
- 21) 베비스 힐리어(1983), 앞글, pp. 263-264
- 22) 조말희(1998). 현대 패션에 사용된 텍스타일 디자인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Vol. 6(3), pp. 157-174
- 23) 조규화(1996). 「뉴 웨이브 패션: 1970년대 이후 서구패션을 중심으로」, 『이춘계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의류학의 이론과 방법』(서울: 일신사), pp. 194-195